

2017학년도 수능대비

문학 EBS Final 3~4강 (현대시)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前 노량진이투스 (마감강사)

前 외교, 자사고 특강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Orbi Class

[1강] Chapter1. 현대시의 패턴

■ 현대시의 주제구성 패턴

- 무 자르듯 나누려하지 말고, 구성에 대해 이해하라
- 구성에 따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 구성 원리를 이해해라

시대적 배경	현대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성 패턴
순수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도 상황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품 : 화자의 성찰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함. (출제 빈도는 현저히 낮음)
상황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와 대상의 상황 파악이 중요한 작품 (주로 고독, 이별 또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 - 화자의 상황 → 화자의 정서와 태도 - 대상의 상황 → 화자, 또는 시대상황과 연결 → 정서와 태도 - 화자의 상황과 정서 → 주요 대상과 연결
정서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끼고 있는 정서를 드러내는 데 주력 : 대상을 이용하는 경우 많음
대상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순수한 관찰과 느낌 ○ 대상에 대한 관찰(속성) → 삶의 의미, 깨달음, 교훈 도출 : 대상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존재함 ○ 대상에게 주는 가르침 → 화자의 생각을 대상에게 전달

■ 낯선 시를 만난다면?

- 대상의 속성 또는 상황, 이와 연결되는 정서 파악에 주력한다.
- 이후 각 시의 의미파악에 주력한다. 긍정 / 부정
-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선지와 함께 눈으로 지운다.
 - * Tip1) 수능에서 두 작품 중 한 작품은 EBS에서 나온다.
 - * Tip2) 두 작품을 묶는 연결고리는 반드시 존재한다.
 - * Tip3) <보기>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읽어라.

■ 낯선 개념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 심미적 관점
- 표면에 드러난 화자
- 객관적 상관물
- 달관, 초탈, 해탈 / 관조적 / 냉소, 자조
- 사물 / 자연물
- 감정의 절제 = 담담 = 정서의 간접 제시
- 시적 긴장감
- 어조의 변화
- 의지적 태도와 어조
- 공감각적 심상
- 반어와 역설
- 중의와 상징의 차이
- 정형적 율격
- 구체적 형상화

[1강] Chapter2. EBS 현대시 리뷰(1)

[EBS 수능특강(1)]

■ 조지훈 낙화 (수능특강 9P)

[시의 흐름]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족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춧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달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대상 : 낙화 → 담담한 어조로 생명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순수한 마음)
- 관조적, 애상적
-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 화자의 애상적 마음을 들킬까 걱정

■ 심 훈 그날이 오면 (수능특강 18P)

<p>[시의 흐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국신이 일어나 대당실 출마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 주지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돌아받아 올라오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가빠서 죽사오매 오처럼 무슨 한이 남으리까</p>	<p>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족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 ■ 일제강점기 패턴 → 저항시 (그날 : 조국광복) ■ 희생적, 의지적, 감정의 직접적 표출</p>

■ *김소월 산유화 (수능특강 91P)

<p>[시의 흐름]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생성</p> <p>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고독1</p>	<p>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 고독2</p> <p>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소멸</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 ■ 생성(순환) → 고독 → 소멸의 3단구성 ■ 3음보, 각운(종결어미의 반복), 수미상관</p>

■ 박두진 도봉 (수능특강 91P)

[시의 흐름]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 **고독감**

산그늘 길게 늘이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 **시간경과**

생(生)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 **삶에 대한 인식**

[작품의 핵심 포인트]

- 1~5연 고독 → 6~7연 시간경과 → 7~9연 삶에 대한 인식
- 그대 : 조국으로 치환하여 생각해보자. / 통일성, 안정감

■ *한용운 - 당신을 보았습니다 (수능특강 94P)

<p>[시의 흐름] 2연, 3연</p> <p>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 [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主人)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p>	<p>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u>“민적 없는 재(者)는 인권(人權)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u> 하고 능욕(凌辱)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煙氣)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경험 → 부정적 상황(일제강점기) 형상화 ■ 부정적 대상 : 주인, 장군 / 화자가 상실한 것(조국) : 추수, 인격, 인권, 민적 ■ 윤리,도덕,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 : 윤리, 도덕, 법률이 권력(칼), 돈(황금)을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전략
--

■ 김종철 - 만나는 법 (수능특강 94P)

[시의 흐름] 2연, 3연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의 이마에
들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들었습니
다
애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
도 차렸습니다
(2연계속)

[2연 이어서]
다음 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
지 않았습니
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구체적 경험 → 시간에 대한 인식 (일상적 삶 : 과거, 현재, 미래의 공존)
- 주객전도의 표현

■ 윤제림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수능특강 94P)

[시의 흐름]

손이 어는지 터지는지 세상모르고 함께 놀다가 이틀테면, 고누놀이나 딱지치기를 하
며 놀다가 “저녁 먹어라” 부르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달아나던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는 사내아이한테서.
누런 변기 위 ‘상복 대어’ 따위 스티커 너저분한 화장실 타일 벽에 “똥 누고 올
게” 하고 제집 뒷간으로 내뺐더니 영 소식이 없던 날의 고누판이 어른거렸습니다.
짜식, 정말 치사한 놀이네! 영안실 뒷마당 높다란 옹벽을 때리며 날아와 떨어지는
낙엽들이 친구가 던져 두고 간 딱지장처럼 내 발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딱지, 너
다 가제!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친구의 죽음, 장례식장(현재) → 친구의 아들 → 어릴적 추억 회상
- 타일벽(매개체) - 고누판(추억), 낙엽(매개체) - 딱지장(추억)

■ 백석 -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수능특강 97P)

<p>[시의 흐름]</p> <p>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p> <p>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 부정적 상황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p>	<p>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 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p> <p>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 양응양 울을 것이다</p>
--	--

[작품의 핵심 포인트]

- 현재 : 부정적 상황 → 소망 : 산골 (나타샤, 흰 당나귀 : 환상적 분위기)
- 화자의 이를 수 없는 사랑, 시적허용

■ 정진규 - 산수유-알1 (수능특강 97P)

[시의 흐름]

서울 한복판인데 이걸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훌륭하다 (예찬)
꿀벌 : 꿀을 찾아 11킬로미터 이상 왕복 → (사랑과 소통을 위한 열정, 노력)
나의 사랑도 일찍이 그렇게 길 없는 길을 찾아 황복했던가 너를 드나들었던가 (반성)
그래, 무엇이든 왕복일 수 있어야지 (깨달음)
그건 아직도 유효해! → (사랑과 소통의 회복에 대한 소망, 가능성)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계절적 배경 : 봄
- 노오랑게, 노오란 : 시적허용 / 산수유 = 사랑, 소통

■ *이육사 - 교목 (수능특강 100P)

[시의 흐름]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 희생(개인적 영화 거부)에 대한 결의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의지적 태도 / 바람 : 유혹, 꿈길 : 새로운 세상, 낡은 거미집 : 고난
- 강조의 부사어 : 아예, 차마, 차라리

■ 고재종 - 세한도 (수능특강 100P)

[시의 흐름]

마을회관 : 독재정권 시대 농촌의 현실 → 부정
땃바람, 궁벽, 앵프, 울고 넘는 이장 : 시련, 부정적 현실
청솔 : 희망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농촌의 부정적 현실 → 희망과 의지 (시상의 전환, 어조변화)
- 의인법(청솔)

■ 정지용 - 비 (수능특강 102P)

<p>[시의 흐름]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바람. 앉았거니 하여 교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p>	<p>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멧은 듯 새삼 돌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간결, 절제, 담담, 관조 ■ 시선의 이동, 시간의 흐름
--

■ 김영랑 -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능특강 102P)

<p>[시의 흐름]</p> <p>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p>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다림의 대상 : 봄 ■ 기대림 → 황홀, 찬란, 보람 → 서운 → 기다림, 섭섭 / 도치, 역설
--

■ 김광균 - 노신 (수능특강 105P)

<p>[시의 흐름]</p> <p>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어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밑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땀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p>	<p>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 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인으로서의 생활의 무게 : 좌절, 슬픔, 한탄 → 시상의 전환 (의지) ■ 구체적 형상화 (가난→의인화), 노신 / 등불 : 의지

■ 김종길 - 성탄제 (수능특강 105P)

<p>[시의 흐름]</p> <p>1~6연 : 과거회상 산수유 열매, 서느런 옷자락 → 아버지의 사랑 7~10연 : 현재 반가운 그 옛날의 것 : 눈</p>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다림의 대상 : 봄 ■ 축각의 대비 (열 ↔ 서느런 옷자락), 아버지의 사랑 : 산수유 열매
--

■ 운동주 - 별 헤는 밤 (수능특강 109P)

[시의 흐름]

[전략]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
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
[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별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
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
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
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
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뜨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
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별 : 긍정의 대상 / 최고조 어머니 (그리움, 추억)
-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 [시상의 전환] 희생, 의지

■ 서정주 - 무등을 보며 (수능특강 111P)

<p>[시의 흐름] 가난이야 한낱 남류(南流)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을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야 다 가릴 수 있으랴</p> <p>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 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엔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놓을쳐 휘어드는 오후(午後)의 때가 오거든 내외(內外)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리리 그 곁에 누워라</p>	<p>지어미는 지어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어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p> <p>어느 가시덤불 썩 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어요 청태(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p>
---	---

[작품의 핵심 포인트]

- 한국전쟁 직후 부정적현실(가난) → 신뢰와 애정으로 극복
- 설의법, 명령형 어조

■ 황지우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수능특강 111P)

<p>[시의 흐름] 영화(映畵)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p>	<p>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p>
---	--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독재정권 / 이 세상 밖 : 화자가 소망하는 곳
- 새 : 비상하는 존재 → 화자 : 새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좌절, 무력

[2강] Chapter2. EBS 현대시 리뷰(2)

[EBS 수능특강(2)]

■ 김춘수 - 꽃 (수능특강 114P)

[시의 흐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꽃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개성, 본질**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의 의미 있는 존재**이 되고 싶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관념적 내용(의미 있는 존재) → 구체적 형상화 (꽃)
- ~싶다 : 소망의 어조

■ 장석남 - 수목 정원9 - 번짐 (수능특강 114P)

[시의 흐름]

목련꽃 → **(번짐)** → 여름 / 너 → **(번짐)** → 나, 나 → **(번짐)** → 너
꽃 → **(번짐)** → 열매 / 여름 → **(번짐)** → 가을 음악 → **(번짐)** → 그림
삶 → **(번짐)** → 죽음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환히 밝힌다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내비 한 마리 날아온다 (인강세상과 자연의 조화)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관념적 작품 / 번진다 :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침 (생성을 위한 소멸)
- 깨달음, 성찰

■ 박남수 - 새1 (수능특강 117P)

[시의 흐름]

1.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새 : 순수, 사랑, 자연
- 포수 : 인간, 문명 / 상한 새 : 파괴된 자연(파괴된 순수)

■ 박봉우 - 나비와 철조망 (수능특강 117P)

[시의 흐름]

나비 (우리 민족) → 꽃밭 (민족의 화합, 평화와 이상의 세계)
시푸런 강, 산, 철조망, 벽 : 시련, 분단의 현실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우의적 형상화
- 어설픈 표시의 벽 = 분단현실이지만 있다면 극복 가능하다는 화자의 생각

■ 박재삼 -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수능특강 119P)

[시의 흐름]

1연

가을 햇볕 +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 눈물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2연

제삿날, 해 질 녘 가을 강 = 서러움의 심화 [소멸, 상실]

3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영원) 인생의 한이 수렴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서러움의 승화, 한의 내면화]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자연적 대상에 대한 인식 → 삶에 대한 사색
- 눈물 → 강 → 바다로 물의 이미지 확대, 연결
- 울음(저녁노을)이 타는 가을 강 (시각의 청각화)

■ 고은 - 눈길 (수능특강 119P)

[시의 흐름]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무념무상의 경지 (=어둠)
- 온 겨울고뇌에 찬 방향을 떠돌고 와 낯선 지역, 눈평화를 바라봄

■ 조지훈 - 동물원의 오후 (수능특강 122P)

<p>[시의 흐름]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p> <p>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p> <p>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p>	<p>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p> <p><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p> <p>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 된 위치에 통곡(痛哭)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 고 있었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 주객전도의 표현
--

■ 정호승 - 슬픔이 기쁨에게 (수능특강 122P)

<p>[시의 흐름]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꿀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열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p>	<p>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가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 슬픔, 너 = 기쁨 /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슬픔 : 긍정적 가치)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 역설적 표현
--

■ **신동엽 - 껌데기는 가라 (수능특강 125P)**

<p>[시의 흐름]</p> <p>껌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껌데기는 가라.</p> <p>껌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껌데기는 가라.</p>	<p>그리하여, 다시 껌데기는 가라. <u>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u> <u>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u> <u>부끄럼 빛내며</u> <u>맞절할지니</u></p> <p>껌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 : 독재정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시어 : 껌데기, 쇠붙이 / 긍정적 시어 : 알맹이, 아우성, 흠가슴 ■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맞절할지니 : 순수 	
--	--

■ **신경림 - 농무 (수능특강 127P)**

<p>[시의 흐름]</p> <p>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p>	<p>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시대 농촌의 부정적 현실 ■ 신명이 난다 : 반어&역설 / 걱정이, 서림이 	
--	--

■ 김중삼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수능특강 127P)

[시의 흐름]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 남대문 시장 : 평범한 서민의 거리
 그런 사람들 =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 시인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시인 : 열심히 하는 서민들이 바로 시인

■ 정희성 -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수능특강 130P)

[시의 흐름]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설의법 (강물 = 인생) / 삼 = 노동의 수단
 ■ 셋강바닥 썩은 물 = 암울한 현실, 부정적인 노동 상황 / 체념적, 수용적 태도

■ 기형도 - 홀린 사람 (수능특강 130P)

[시의 흐름]

사회자 : 권력의 개 / 이분 : 독재정권
 군중 : 무지한 대중
 누군가 : 비판의식을 가진 지식인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 비판을 허용하지 않음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독재정권의 실체는 가려짐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독재정권과 연결하여 이해

■ 강은교 - 우리가 물이 되어 (수능특강 133P)

[시의 흐름]

물이 되어 만난다면 기운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죽은 나무뿌리를 적기도 한다면 /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솟아 났 뼈 하나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싹둑고 있으니
민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가정법의 문장구조 사용
- 세상의 정화, 소망, 합일 / 불의 정확한 의미 파악

■ 최두석 - 성에꽃 (수능특강 133P)

[시의 흐름]

성에꽃 = 처녀 총각 아이 아른 미용사 실업자의 입담과 숨결 = 가뭄인 이튿다음
나는 무슨 전람회라도 온 듯.. 차가운 이튿다음에 취한다
달강가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만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애정의 시선, 친구에 대한 그리움
- 문장구조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던가)

■ 김광규 - 안개의 나라 (수능특강 136P)

<p>[시의 흐름]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p>	<p>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개 : 진실을 가림 (허위, 왜곡) / 비유적 / 독재정권 ■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 시민의식의 마비,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순응 ■ 들어야 한다 : 차선책 (수동적인 대응 / 방어적 대응) 	
---	--

■ 신석정 - 대숲에 서서 (수능특강 136P)

<p>[시의 흐름] 대숲으로 간다 대숲으로 간다 한사코 성근 대숲으로 간다</p> <p>자욱한 밤안개에 버레소리' 젖어 흐르고 버레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고</p>	<p>대숲은 종드라 성글어 종드라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종드라</p> <p>꽃가루 날리듯 흥근히 드는 달빛에 기척 없이 서서 나도 대같이 살거나</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숲 :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자연물이 서로 화합하는 공간) ■ 역설적 표현(서러움+종음), 성글고 서럽지만 종대(삶의 비애→화합) 	
--	--

■ 유지환 - 생명의 서 (수능특강 274P)

[시의 흐름]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메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
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
끼고 호을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의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현실의 자아 : 회의와 애증(병든나무) → 본연의 자아(원시의 본연한 자태)
-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 = 아라비아의 사막(극한 상황, 깨달음의 공간)
- 의지적 태도

■ 곽재구 - 새벽 편지 (수능특강 287P)

[시의 흐름]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
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흔들만 깜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디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리얼락 꽃향기를 맡
기 위하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새벽편지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실천적 행위
- 반복, 변주, 수미상관 / 희망이 충만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

■ 송수권 - 까치밥 (수능특강 292P)

[시의 흐름]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하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족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갈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경경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작품의 핵심 포인트]

- 현대인들에게 배려, 나눔의 교훈 / 부름 - 명령 - 명령의 이유
- 까치밥의 가치를 등불에 비유

■ 김준태 - 강강술래 (수능특강 292P)

[시의 흐름]

풀어치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할머니, 대밭을 소중히 가꾸시던 할아버지
 - 자연과 인간의 조화
 - 과거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모습
 논, 밭이 되고 싶은 화자
 - 과거 농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 강강술래 : 화자의 소망을 기원의 형식으로 표현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논, 밭 =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구조 분절 (할머니, 할아버지, 나)
 - 추석날 천릿길 고향에 내려가~밭톱을 꺾아 주면서

■ 김수영 - 눈 (수능특강 306P)

<p>[시의 흐름]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p> <p>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p>	<p>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p> <p>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시인의 생명력 있는 행동 촉구 / 가래 : 안일, 위선, 허위 ■ 기침 : 생명력 회복을 위한 행위 / 1연 : 변주, 점층
--

■ 나희덕 - 땅끝 (수능특강 307P)

<p>[시의 흐름]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뱃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p> <p>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들어 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p>	<p>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p> <p>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끝에 대한 인식 변화 : 희망을 찾는 곳 → 위기, 위태로움 → 희망 ■ 역설법, 음성상징어
--

■ 김광섭 - 저녁에 (수능완성 22P)

[시의 흐름]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별과 나 : 만남(인간의 관계), 회자정리 / 거자필반(불교적 가치관)

■ 변영로 - 논개 (수능완성 147P)

[시의 흐름]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땨던 그 아미(娥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민족주의적 (논개에 대한 예찬)
- 후렴구, 설의법, 색채대비

■ 이수복 - 봄비 (수능완성 147P)

[시의 흐름]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에라고 지껄이것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것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비 : 시상유발 매개체 / 서러운 풀빛 : 감정이입
- 봄의 생명력과 임의 죽음 대비

■ 최하림 - 아침 시 (수능완성 170P)

[시의 흐름]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려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불이 붉은 맥나까지도 쿵쿵쿵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꿩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굴참나무(1연)와 아이들(2연)이 만드는 활력 : 긍정적 시각
- 동화적 상상력 가미

■ 이성부 - 봄 [수능완성 170P]

[시의 흐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 절망적 상황 (군부 독재정권)
 민주주의의 역사적 당위성 : 너는 온다 / 올 것이 온다
 민주주의 → '너' 로 의인화
 현재시제 / 종결어미의 반복 / 대화체

■ 유하 - 빠비용, 영화사회학 [수능완성 195P]

[시의 흐름]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비용처럼
 총알 빔발질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비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볼테 안경의 드가
 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작품의 핵심 포인트]

- TV → 탈출한 표범(자유 추구) ↔ 우리 속 표범 (안주)
- 영화 → 빠비용(자유 추구) ↔ 드개(안주)
- 자유를 포기하고 길들여진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반성
- 간접화법, 언어유희

■ 이동순 - 개밥풀 (수능완성 195P)

[시의 흐름]

아닌 밤중에 일어나
 실눈을 뜨고 논귀에서 킁킁거리며
 맴도는 개밥풀
 떠도는 발끝을 물밑에 닿으려 하나
 미풍에도 저희끼리 밀고 밀리며
 논귀에서 맴도는 개밥풀
 방계 물장군들이 지나가도
 결코 스크럼을 푸는 일 없이
 오히려 그들의 등을 타고 앉아
 휘파람 불며 불며 저어 가노나
 벗짚 사이로 빠지는 열기
 음력 사월 무논의 개밥풀의 함성
 =====
 논이 수확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버리며
 우리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더니
 어느 날 큰비는 우리를 뿔뿔이 흩어 놓
 았다
 개밥풀은 이리저리 전복되어
 도처에서 그의 앞파랑이를 햇살에 널리
 우고
 더러는 장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어디서나 휘몰리고 부딪치며 부서지는
 개밥풀, 개밥풀, 장마 끝에 개밥풀

자욱한 벗짚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
 고
 논바닥을 파헤쳐도 우리에게겐 그림자가
 없다
 추풍이 우는 달밤이면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옷깃으로 눈물을 짖어 내며
 귀뚜라미 방울새의 비비는 바람
 그 속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운다
 =====
 씨앗이 굶어도 개밥풀은 개밥풀
 너희들 봄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는 겨울 논바닥에 말라붙는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약하지만 연대(봄) → 자유를 위한 희생과 시련(여름) → 슬픔을 삭이는 개밥풀(가을) → 다음 세대를 기억(겨울)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사상전개
- 개밥풀 = 민중 / 부당한 외부권력에 맞서는 정신적 가치

■ 나태주 - 사는 일 (수능완성 221P)

<p>[시의 흐름]</p> <p>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p> <p>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걸지 않아도 좋을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p>	<p>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전환]</p> <p>걸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할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강계 익은 명석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비늘 찍으러 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나뭇짓도 보았으므로</p> <p>이제 날 저물려고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도 잠잠해졌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p>
---	--

<p>[작품의 핵심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여정 → 인생(삶)에 비유 ■ 1연 현실에 순응 → 2연 예상치 못한 고난 → 3연 긍정적 시각 → 4연 삶에 만족하며 하루 마무리 ■ 수미상관
--

■ 정일근 - 흑백사진 (수능완성 221P)

<p>[시의 흐름]</p> <p>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쉽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 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며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들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유년시절 여름풍경]</p> <p>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뱉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 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오수(낮잠) → 여름자연풍경과 동화 / 주객전도]</p> <p>- 회상적, 낭만적, 감각적, 묘사적, 산문시, 대화체, 비현실적, 음성상징어</p>

■ 복효근 -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수능완성 248P)

[시의 흐름]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걱정 아랑곳없이
가르마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
을 내고 살아 있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라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 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거
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
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자연 훼손 → 죽은 잔디 → 사람 몸 속 푸른 길 →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줌
- 자연의 순환 [잔디 : 자연을 상징]
- 역설적 깨달음

■ 박목월 - 나무 (수능완성 248P)

[시의 흐름]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쳐 몰
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
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작품의 핵심 포인트]

- 늙은 나무 : 수도승, 어설픈 과객, 파수병 - 고독감
- 화자 : 존재의 고독 인식 (나무와 일체화)
- 비유적 표현 / 영탄법 / 산문시